

전통적인 산지관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머리말

산지가 국토의 3/4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산지는 옛부터 사람들의 삶의 바탕이었다. 사람들은 산지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산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산을 포함한 땅을 삶의 원형적 존재로 파악하였다. 우리의 건국 신화의 장소가 태백산 신단수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이다. 산에 대한 숭앙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화되었으니, 이는 산에 대한 경외가 개인이나 민간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당대인의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 예로 삼국시대에 신라는 東岳인 토함산, 南岳인 지리산, 西岳인 계룡산, 北岳인 태백산, 中岳인 父岳(지금의 팔공산)을 五嶽으로 정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제사인 中祀를 행하였다. 고려와 조선에서도 祀典제를 정하여 대, 중, 소의 제사를 규정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요 山川은 중요한 제사처였다.

산지가 우리 국토의 공간구조와 경관형성, 우리의 삶과 문화의 중요한 바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전의 산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관념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 글에서는 근대 이전의 산에 대한 관념, 우리나라 모든 산의 근원으로 인식하였던 백두산의 宗山化 과정과 백두대간의 개념 형성 과정을 고찰하였다.

2. 전통적 산 관념과 산의 유형

산의 명칭을 통해 산의 유형과 산에 대한 한국인의 관념을 살펴 보기로 한다.¹⁾

1) 天山과 白山

산은 하늘의 기운을 받아 형성되었으므로 천산이라 한다. 그러나 모든 산을 천산이라 지칭하지 않는다. 천산은 天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崑崙山, 白山 등과 같이 숭고하고 신성하게 여기는 산을 말한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곤륜산을 천지의 중심이자 모든 산의 원천으로 보았다. 천산 관념은 알타이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만(박시인, 1981), 우리나라의 특징은 수많은 천산, 백산 계열의 산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양의 광명한 기운이 스미는 곳이라 하여 백산이라 이름하였기에 천산이 곧 백산이다. 백두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산이다.

2) 龍山

천산이 능동성을 지닌 山龍이 되어 물을 융섭하는 과정을 거치니 이것이 용산 관념이다. 용은 천변만화하여 인간에게 길흉을 주는 신성한 존재다. 산도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존재라고 여겨 용산이라 불렀다. 산룡은 다시 하천으로 혈맥을 삼고 다양한 조화를 지니며 인간에게 다가오게 되니, 天地人 상관성에서 땅 위주의 관계성을 지닌 산 관념이다.

천산에서는 산을 보되 하늘 위주의 관념이었으니 산에 대한 태도는 숭배로 나타났었다. 그런데 농경 사회로 진입하고 땅에 대한 인간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땅이 지닌 힘[地力]에 대한 신앙이 생겨났고,

1) 이 절은 최원석, 1992, 風水의 입장에서 본 한민족의 山觀念 - 天山·龍山 그리고 人間化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과 최원석, 1993, "풍수로 보는 우리 민족의 산," 『풍수, 그 삶의 지리 생명의 지리』, 푸른나무의 글의 내용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물이 중시되었으며 아울러 산에 대한 관념과 태도도 변하게 되었다. 산에는 靜中動의 조화무궁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된 것이다. 그 산은 하천에 이르러 물을 만나고 있었으니 용이란 이름을 빌어 용산이라 이름하였다. 풍수에서는 산을 龍으로 이해한다. 용은 생명체이며, 생명체는 단절되지 않으며, 생동하는 움직임을 갖는다. 땅을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은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이지만, 풍수에서는 더욱 두드러진다.

3) 神山

산은 신의 거주처이므로 神山이다. 하늘이란 형체를 일컫고, 하늘의 妙用을 神이라고 했으니, 신은 하늘의 의미가 인간에게 가까이 다가온 개념이다. 따라서 神山은 天山보다 인간화된 표현이다. 단군신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天神이 인간화'한 것과, "아사달로 돌아와 山神이 되었다"는 것이다. 신라의 탈해왕도 죽어서 東岳(토함산)山神이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三神山 관념이 시작된다. 하늘이 산에 내려와 인간이 되고, 죽어 다시 산으로 깃들여 나라와 마을의 수호신이 되니 하늘과 산과 사람은 相關的이라는 관념이 생겼다.

4) 佛山

우리 민족이 지닌 神山 관념의 또 다른 특징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佛山 관념이다. 佛岩山·佛見山·曹溪山·華嚴山·文殊山·般若山 등 전국 도처의 산에서 나타나는 불교와 관계된 산이름들은 우리나라의 산이 불교와 매우 깊은 연관이 있음을 잘 말해 준다. 불산은 부처와 산이 일체화된 개념이다.

5) 풍수의 四神砂와 五星, 造山과 假山

지리적 측면에서 한국인의 전통적인 자연관, 지리적 관념을 체계화한 것이 풍수이다. 풍수 및 풍수적 사고는 우리의 기층적인 지리관을 보여 주는 자연관이다. 풍수에서는 만물을 생성하는 기는 산에서 발원하고 산의 맥을 통하여 흐른다고 본다.²⁾ 풍수의 기본 구성을 이루고 있는 사신사는 四方山을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守護星神이 현현했다고 보았으니 神山이 땅에 구현된 풍수 山觀의 초기적 관념이라 생각된다. 五星 관념은 하늘과 땅이 상관적이라는 관념이 음양오행론의 발전에 영향을 입어 구체화되고, 아울러 기와 형은 서로 응하는 것으로 인지됨으로써 본격화되는 듯하다. 이러한 形氣의 산관은 이 어 形勢의 산 관념으로 발전하는 배경이 된다.

五星은 금성, 목성, 수성, 화성, 토성을 일컫음인데, 하늘에서는 象을 이루고 땅에서는 形을 이루어 五行이 된다. 오성산의 인식에 이르러 기와 형은 온전히 상응하게 되어 形氣로 산을 본다. 形은 生의 집이요, 기는 생이 충만한 것이다. 형기라 함은 형상, 형국을 이름이고 형기의 기는 형상을 통하여 그 기를 본다.

假山과 造山, 선돌, 들무더기, 당산, 장승, 담, 솟대, 당간, 洞藪, 지명 등 비보압승은 산천의 단점을 인간이 사랑하고 보완해서 쓰는 것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 주는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자연관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산의 원천인 백두산, 그리고 그에서 뻗어내린 '백두대간'은 우리 산지 체계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에 백두산이 宗山化하는 과정과 백두대간의 개념 정립 과정을 살펴 본다.

3. 국토의 宗山 개념의 성립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자연적 상징이었다. 茶山 丁若鏞이 『大東水經』에서 "8도의 모든 산이 다 이 산에서 일어났으니 이 산은 곧 우리나라 산악의 祖宗이다."³⁾라고 기록한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지녔던 백두산에 대한 숭앙심과 백두산의 영역적 의미에 관한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우리 한국의 산천은 모두 백두산을 祖宗으로 하고 있으며 두만강 북쪽, 토문강 남쪽에 북간도가 있으니, 그 북간도의 韓東·

2)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33.

3) 『大東水經』, 其一, 洙水一

奚關·南京 세 곳은 실은 우리 聖祖가 發祥한 땅이다”⁴⁾라는 표현은 백두산과 주변 지역의 또 다른 의미, 즉 백두산이 조선 왕조의 발상지로서 신성시되었음을 보여 주는 귀절이다.

백두산을 민족의 성산으로 본격적으로 숭배화한 문헌은 고려 태조 왕건의 탄생설화부터라 생각된다. 『高麗史』 高麗世系에는 왕건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김관과의 『편년통록』에 …이 땅의 지맥은 북방[王方]인 백두산으로부터 水와 木이 근간이 되어[水母木幹] 내려 와서 馬頭明堂이 되었으며, 당신은 또한 水命이니 마땅히 水의 大數를 좇아서 집을 六六으로 지어 36간으로 하면, 천지의 大數에 부합하여 명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에게 王建이라는 이름을 지을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 탄생했다는 것을 강조한 기록이다. 고려는 통일 후 수도를 국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개성으로 옮기고, 각 지역 인물의 포용과 합리적인 제도의 운영 등을 추진하였다. 위의 기록은 왕건의 태생지인 개성과 왕건의 인물됨을 풍수에 의탁하여 신성화한 내용이다. 개성이라는 지역과 왕건이라는 인물을 신성화하는 근거와 수단으로 백두산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이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신성한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었으며, 국민을 통합할 설득력있는 상징이 되어 있었던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백두산과 북방 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지대했다. 조선 왕조를 개창한 태조 이성계는 조상의 옛 터인 동북지방을 중요시하였으며, 건국 후 바로 길주의 국경 한계를 두만강 하류 공주까지 연장시키고, 그곳에 성을 쌓고 慶源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세종은 압록강, 두만강을 경계선으로 하는 국경을 확정함으로써 영토를 넓히고, 확고한 자연지형을 국경으로 확보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중국을 점령한 청나라는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들 조상의 발상지를 성역화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1677년에 청나라 聖祖는 長白山이 청나라 祖宗發祥의 땅이라 하여 가서 살피오도록 하였으며, 1678년에는 長白山神을 봉하고 五嶽과 동일하게 제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1644년에는 조선 인민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캐거나 벌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조선 국왕에게 이첩해서 엄히 금지토록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⁵⁾

여진의 뿌리 지역이며 동시에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기도 한 백두산을 중심한 두만강과 압록강 일대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 문제라는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주인이 된 청나라와의 사이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국경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백두산은 국경분쟁의 초점이 되었다. 그러나 백두산은 정치적, 현실적 측면에서 국왕 이하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민족의 상징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확고히 하였다.

1712년(숙종 38)에 조선과 청나라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土門江’으로 국경을 정하고 백두산 남쪽 10리 지점에 정계비를 세워 국경문제를 일단락지었다. 조선도 1761년(영조 37) 예조판서 韓翼暮의 건의에서 비롯되어⁶⁾, 1767년(영조 43)에 함경도 갑산부 80리 지점 雲龍堡 북쪽 望德坪에 장소를 골라 각을 세우고 백두산에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⁷⁾ 백두산 치제는 국가의 조종산으로서의 백두산의 의미를 확고하게 하였음은 물론, 왕실과 왕권, 함경도 지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백두대간’ 개념의 형성과 조선 후기의 산지 인식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山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였으니, 여암 신경준의 『산수고』가 그 선구였다. 『산수고』는 우리 나라의 산과 하천을 각각 12개의 分·습 체계로 파악한 한국적 지형학을

4) 『北路紀略』, 序 : 柳完茂, 1904

5) 劉鳳榮, 1972, “白頭山定界碑와 間島問題,” 『白山學報』 第13號, p.79

6) 『英祖實錄』 권97 英祖37년 1월 庚午

7) 『英祖實錄』 권109 英祖43년 7월 庚子.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山水를 중심으로 국토의 자연을 정리하였으나, 그 속에는 인간 생활과 통합된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산수고』는 국토의 뼈대와 핏줄을 이루고 있는 산과 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지리서이며, 한국적인 산천 인식 방식을 전해 준다.

『산수고』는 “하나의 근본에서 만 갈래로 나누어지는 것은 산(山)이요, 만 가지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로 합하는 것은 물(水)이다. (우리 나라) 山水는 열들로 나타낼 수 있으니, (산은) 백두산으로부터 12산으로 나누어지며, 12산은 나뉘어 八路(팔로)가 된다. 팔로의 여러 물은 합하여 12水가 되고, 12水는 합하여 바다가 된다. 흐름과 솟음의 형세와 나누어지고 합함의 묘함을 여기에서 가히 볼 수 있다.” 로 시작하여 『산수고』를 쓰게 된 동기와 산수의 원리를 설명하였다.

이 서문에는 나라의 근간이 되는 산과 강을 분합의 원리로 파악하여 대칭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음양의 구조로 이해하였던 저자의 생각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조선의 주요 산과 하천을 각각 12개로 파악한 점도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자연관과 우주관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자연의 운행을 보면 1년은 열두달로 완결되며, 우주 만물에는 양과 음이 있다. 우리나라의 산천도 일반 자연법칙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어 12개의 산줄기와 물줄기가 있으며, 산수의 흠어짐과 합함, 우뚝 솟아 서 있음과 아래로 흘러내림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자신이 살고 있는 국토를 소우주로 이해하여 완결적인 존재로 파악하던 당시 사람들의 전통적인 자연관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산 중에는 삼각산을, 물은 한강을 으뜸으로 쳤으니, 이는 京都(수도)를 높이는 것이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서문에서는 백두산에서 조선의 산들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록하였으면서도 실제 산의 분포를 서술할 때는 한양의 삼각산에서 시작함으로써, 그가 백두산 중심의 사고와 수도 중심의 사고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문헌은 19세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山經表』이다. 그러나 ‘백두대간’의 개념은 용어가 정립되어 사용되기 전에 훨씬 앞서 형성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산을 단절된 고립된 봉우리로 보기 보다 흐름을 가지고 이어지는 脈勢로 이해하는 지형 인식은 풍수 사상의 보급과 관련이 있었을 것이며, 풍수가 삼국시대 이후 보급되면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국토의 지형을 이해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우리 국토의 祖宗으로 보는 관점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특히 고려시대에 풍수가 광범위하게 수용되면서 백두산 중심의 地脈論은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현존하는 독립된 지리지 중 가장 오래된 『慶尙道地理志』(1425)의 서문에는 “우리나라의 지세를 보면 長白山[백두산]이 만리를 뻗어 기복을 이루어 마천령, 마운령, 철령, 금간산, 오대산, 치악산이 되고, 경상도의 경계에 이르러 멈추어 태백산과 소백산[大小伯]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초의 국토의 윤곽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세가 백두산에서 시작한다는 것, 지세가 맥을 이루며 만리를 뻗어 기복을 이루어 주요 산을 만들었다는 것, 지세는 남쪽의 지리산에서 멈추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고려시대의 산지 인식을 전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 후기로 이어져 18세기 중엽 星湖 李瀾(1681~1763)은 『白頭正幹』에서

백두산은 우리나라 산맥의 조종이다. 철령으로부터 그 서쪽의 모든 가지들은 서남쪽으로 달렸다. 철령으로부터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닿도록 우뚝 치솟았으니 이것이 곧 正幹이다. 그 왼쪽 줄기는 동해를 끼고서 뭉쳐 있는데, 하나의 큰 바다와 白頭大幹은 시종을 같이 하였다. ... 대개 한줄기 끝은 大幹이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태백산에서 중봉을 이루고 지리산에서 끝나니, 당초 백두정간이라 이름지은 것이 뜻이 있어서일 듯하다.(『星湖僿說』 권1 天地門 「白頭正幹」)

고 남겼다. 『西道關陔』에서도, “대체로 白頭大幹은 바다를 따라 남쪽으로 달린다. 그 사이에 철령이 北關의 관문이 되고, 조령이 동남의 관문이 되었다”⁹⁾라고 하여 ‘白頭大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8) 楊普景, 1994, “조선시대의 자연 인식 체계,” 『韓國史市民講座』 제14집, p74

9) 『星湖先生僿說』(奎 7364) 권2, 天地門, 「西道關陔」

로 보면 18세기 중엽 성호 이익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자리잡아 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의 지리학자 李重煥(1690~1756)이 쓴 『擇里志』에도 “白頭大脈” “白頭南脈” “(白頭)大幹” 등의 표현이 보인다. 또한 丁若鏞의 『大東水經』에도 ‘白山大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東國輿地志』 『輿地圖書』 등 저지에도 반영되어 있다.

18세기 이후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고, 관심의 대상도 영토·정치적인 측면 뿐 아니라 이 지역의 사회·인문·경제적 측면까지 확대되었다. 즉 국토 전역을 균형적으로 보는 넓은 차원으로 관심이 진전되었다. 백두산이라는 산에 대한 점적인 대상에 주목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조선 후기에는 백두산을 포함한 북방지역 전체, 그 지역의 주민, 주민들의 삶에까지 관심의 폭이 넓어졌다. 백두산으로부터 가지와 줄기로 연결되는 산맥 체계를 이루었다고 보는 ‘백두대간’과 산지체계 개념은 위와 같은 국토에 대한 포괄적, 균형적 관심에서 체계화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산맥 체계는 산과 강을 기준으로 한 생활권 개념을 바탕에 두고 있다. 전통적 산지체계는 산지와 인간의 삶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 데서 출발한 것이며, 국토 전체에 대한 균형적 관점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체계화되었다고 보인다.

‘백두대간’의 개념은 오래된 것이었으나, 백두산과 그에서 연결되는 산맥 체계가 정립된 것은 18세기 중엽 이후로 생각된다. 『山經表』에는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1개의 大幹과 1개의 正幹, 13개의 正脈으로 조선의 산줄기가 분류되어 있다.

산경표에 나타난 산맥 체계와 산지 인식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의 맥락과 명칭을 체계화하였으니, 산줄기를 1개의 대간과 1개의 정간, 13개의 정맥으로 분류하고 이름을 부여하였다. 신경준의 『산수고』나 『동국문헌비고』의 「여지고」에 산의 갈래와 흐름을 이야기하였으나 이처럼 일목요연하게 15개의 줄기로 나누고, 산줄기의 이름을 뚜렷하게 부각시킨 것은 아니었다.

둘째, 산맥의 체계가 하천의 水系를 기준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이다. 산줄기의 이름이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백두대간과 장백정간은 하나의 하천 유역권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正脈과 구분하였다. 『산경표』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산맥을 체계화한 山 중심의 인식 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산맥 분류 체계는 江이 바탕이 되어 있었고 이는 사람들의 생활권을 중시한 시각에서 연원하였다는 점이다.

셋째, 대간, 정간, 정맥 등으로 산줄기에 위계성을 부여한 점이다. 간은 줄기이고, 맥은 줄기에서 흘러 나간 갈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계적 차별성은 산이나 산맥의 크기와 높이, 넓이 등 물리적인 외형상의 차이에서 기본적으로 연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물과 현상을 계층성과 차별성을 두었던 중세적인 사유, 성리학적인 사유 구조에서 말미암은 자연의 분류 체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산과 산의 분포, 위치를 줄기 또는 맥으로 파악하여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산들이 연속되어 이어지는 현상을 산맥으로 지칭하는 것은 오늘날도 다름이 없으나, 『산경표』에 나타난 간과 맥들은 단절이 없다. 마치 혈맥이 뻗어나가 서로 통하듯이 모든 산줄기가 연결되어 있고, 산줄기와 산줄기의 결절점에 주요 산이 위치하고 있다. 맥으로 연결된 땅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며 크게 보면 하나의 뿌리를 가진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섯째, 백두산이 국토의 중심 또는 출발점으로 인식되어 있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국왕이 거주하는 수도를 국토의 중심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신경준의 『산수고』는 백두산을 중시하면서도 중심을 漢陽에 두고 있었다. 산의 줄기를 중심으로 본 『산경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일반인의 산지 인식을 체계화하고 정당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맺음말

우리나라 산지에 대한 인식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은 하늘과 인간을 연결하는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였다.

산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령스러운 존재이며, 이 영향력은 시간과 공간에 따

라 변화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산을 살아 있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산에도 인간처럼 여러 종류와 유형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산은 외형에 상응하는 기운이 내재해 있는 것으로 믿었다.

인간처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 조화관계로 산을 보아 비보압승 관념이 나타났다.

산을 인간과 내재적·융화적 관계로 보아 우리들의 원형이고 어머니의 품이라고 여겼다.

산을 개별적,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 맥으로 연결된 생명체로 인식하였다.

단군 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하늘이 산을 통해 인간화하고 죽어서 다시 산의 신으로 돌아간다는 순환 구조적인 원형상이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지도에 산맥 중심의 표현, 서양의 풍경화가 17세기 이후에 발달한 데 비하여 동양에서는 산수화가 6세기에 이미 정립되어 회화의 중심으로 발달하는 점 등 예술로도 승화되어 나타났다.